

#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 축구, 월드컵 준비 탄탄”

카메룬 리고베르 송 감독 “함께 좋은 경기 펼쳐 만족”  
“월드컵서 만날 한국·가나 누가 이길지 예측 불허

카메룬 축구대표팀의 리고베르 송 감독이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패했지만 “만족스럽다”고 총평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7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카메룬과의 평가전에서 손흥민(토트넘)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최정에 전력으로 나서는 사실상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본선 상대 가나의 가상 스파링 파트너 카메룬을 잡으며 아프리카 적응력을 키웠다.

경기 후, 송 감독은 “원했던 것을 찾았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이번 경기가 만족스럽다. 선수들도 자랑스럽다. 우리 팀의 정신을 되찾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카메룬은 이번 원정에 공격수 에릭 막심 추포모팅(바이에른 뮌헨), 미드필더 잠보 앙귀사(사포르) 등 핵심 전력을 제외했다. 사실상의 1.5군이다.

새로운 선수들을 두루 살펴겠다는 의도가 강했고, 검증된 선수들은 무리하지 않는 방향을 택했다.

송 감독은 “새로 투입된 선수들에 대해

만족한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며 “추포모팅과 앙귀사는 쉬고 있지만 우리 선수들이다. 앙귀사는 3일에 한 경기씩 뛰고 있어 쉴 필요가 있었다. 확실한 건 추포모팅과 앙귀사는 우리 가족이라는 점이다”고 했다.

한국에 대해선 “아주 좋았다. 정말 훌륭하다. 우리가 잘하지 못했다면 스코어가 더 벌어졌을 것이다”며 “한국의 국제축구 연맹(FIFA) 랭킹이 높는데 그럴 자격이 있다. 한국에는 유럽 리그의 선수들도 많다. 한국이 경기를 잘해서 우리에게도 좋은 경험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가나와 상대한다. 같은 아프리카 대륙의 카메룬은 어떻게 전망할까.

이와 관련해 송 감독은 “좋은 경기가 될 것이다. 한국이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가나도 그렇다”며 “누가 이길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 아주 좋은 경기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손흥민과 대화를 주고받은 장면에 대해선 “축구를 할 때는 페어플레이가 중요하다. 오늘 관중이 많이 왔는데 서로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카메룬의 경기, 카메룬 리고베르 송 감독이 국기를 부르고 있다. 뉴스시스

인사를 하고 싶었다. 손흥민이 굉장히 친절하고 응대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데일리/뉴스시스

## 호날두 여친 ‘드라마 같은 인생역전’

시급 1만6000원→한달 용돈 1억3000만원

채널S ‘김구라의 라떼’



시급 1만6000원을 받던 한 달 용돈으로 1억3000만원을 받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의 사연이 소개된다.

28일 오후 9시20분에 방송되는 채널S ‘김구라의 라떼’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인생 역전’을 주제로 한다. 지난주에 이어 제이슨이 특별MC로, MZ손님으로는 그룹 ‘립블지’의 디디카윤·바름이 함께 한다.

이날 6위에 오른 ‘한 달 용돈 1억3000만원인 신데렐라’의 주인공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사는 조지나 로드리게스다. 어머니 홀로 생계를 책임진 탓에 어려서부터 많은 일을 해 왔던 로드리게스는 2016년 명품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한 VIP 고객과 마주쳤다. 연봉 300여원이 넘는 이

호날두는 로드리게스를 보자마자 첫 눈에 반해 저녁 데이트 신청을 하나 로드리게스는 그를 애태우기 위해 거절한다. 이 전력이 호날두에게 통하면서 로

드리게스는 9세 연상의 호날두와 연애를 시작했다. 한 달 용돈으로 무려 1억3000만원을 받으며, 77억 집과 88억 요트까지 선물받았다고. 뿐만 아니라 호날두의 연인이 되면서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4000만명이 됐고 잡지와 브랜드 모델로도 활동하게 됐다. 로드리게스의 이야기를 들은 김구라는 그의 성공 비법이 “잔소리 안 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김구라가 “결혼을 재촉할 법한데 안 하지 않나”고 부연하자, 제이슨은 “홍현희 씨가 저한테 잔소리를 하나도 안 한다”며 공감한다. 스카이데일리/뉴스시스

## LG 역대 최강 철벽마운드... ‘다승·세이브·홀드 왕’ 눈앞

2022 신한은행 SOL KBO 리그 40 LG 트윈스가 최강 마운드를 자랑하고 있다. 한 시즌에 다승 왕, 세이브, 홀드 1위 배출을 눈앞에 뒀다.

LG는 지난 27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 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김윤식의 호투와 불펜진의 무실점 계투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2연승을 올린 2위 LG(82승 2무 49패)는 이날 경기가 없었던 1위 SSG 랜더스(86승 4무 47패)와의 승차를 3경기로 좁혔다. 아직 정규리그 1위 탈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서 6회초 2사 1,3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넘긴 LG 선발 플러트코가 기뻐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날 LG는 구단 최다승 신기록을 경신 한 투수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G의 팀 평균자책점은 3.34로, 리그 1위

에 올라 있다. 원투펀치 케이스인 플러트코(15승 4패 평균자책점 2.59)와 아담 플러트코(15승 5패 평균자책점 2.39)는 올해 30승을 합작했다. 나란히 15승씩 수확해 다승 부문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고우석은 전날 한화전에서 시즌 40세이브(3승 2패 평균자책점 1.55)를 달성했다. 2003년 ‘야생마’ 이상훈 이후 19년 만에 LG 유니폼을 입고 구원왕 등극을 바라보고 있다.

정우영(33홀드)은 홀드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2, 3위 선수들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홀드 1위를 확정지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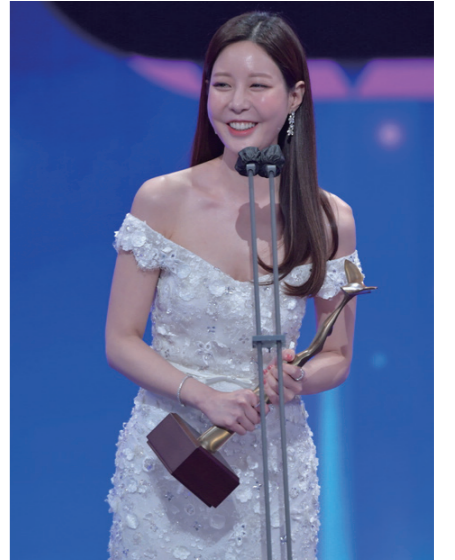
## ‘열린음악회 안방마님’ 이현주, 11월 화촉

KBS 아나운서 이현주(38)가 결혼한다.

28일 KBS에 따르면, 이현주는 11월4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신랑은 2세 연하 변호사다. 지인 소개로 만났으며, 1년여간 교제 끝에 결실을 맺었다.

이현주는 2009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4년 만인 2012년 ‘KBS 뉴스 9’ 앵커를 맡았다.

2015년부터 황수경 후임으로 ‘열린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 ‘VJ 특공대’ ‘영화가 좋다’ ‘연중 라이브’ 등에서도 활약했다.



11월에 결혼하는 KBS 아나운서 이현주. 뉴스시스

##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